

impullary cancer)(7 예), 폐 (4 예), 자궁경부 (2 예), 소장 난소, 신장, 부신이 각 1 예의 순이었으며 원발병소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19 예였다. 거의 대부분 남성에서의 발생빈도가 더 높았으나, 담낭에서는 여성에서의 발생빈도가 더 높았다.

세포학적 소견상 전이성 암의 거의 대부분 (105 예)이 암종 (carcinoma)였으며, 육종 (sarcoma)은 3 예에 불과하였다. 암종의 거의 대부분이 선암종이었으며, 소수에서 신경내분비 암종 (7 예), 편평상피 암종 (1 예), 신세포암종 (1 예), 부신피질 암종 (1 예), 미분화 암종 (1 예)이 관찰되었고, 육종은 평활근육종 (2 예)과 악성림프종 (1 예)이었다. 전이성 암종에서는 거의 대부분 괴사 및 염증성 도말 배경 소견을 보이며, 종양 세포의 간세포양 소견이나 내피세포로 피복된 소주형 세포배열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간세포 암종과의 감별이 가능하였으나, 전이성 선암과 담관 암종 사이의 감별은 세포학적 소견만으로는 매우 어려워, 임상 및 방사선과학적 소견이 도움이 되었다. 세포학적 소견만으로 원발병소를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결장, 신장 등과 같이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몇몇 장기로 제한되었으나, 세포학적 소견에 따른 보다 정확한 분류는 특히 임상 소견을 고려할때, 잠재성 원발병소의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10. 담즙 세포학 표본 362 건의 검색 Analytic Study of 362 Bile Cytologic Materials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고재수, 하창원, 명나혜, 조경자, 장자준

담도 폐쇄에 의한 폐쇄성 황달이 있는 환자에서 고식적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피적 경간 담즙 배액술 (PTBD)을 통한 최근 2년간의 담즙 세포학 표본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수는 104 명이었고 세포학 건수는 362 건이었다. 그 세포학적 진단을 보면 malignancy가 18 건, suspicious malignancy 27 건, atypical cell을 보인 경우가 45 건, negative result가 272 건이었다. 한 환자에서 검사가 반복된 경우가 많아서 최대 31 회까지 시행되었다.

104명의 환자 중 악성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확진되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분명한 경우가 36 예이었고 이 들에서 시행된 121 건의 검사에서 malignant cell이 검출된 경우는 26 건으로서 21%의 낮은 sensitivity를 보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체 환자의 24%인 25명에게 간흡충 (clonorchis sinensis)의 총란이 검출되었고, 이 중 15명은 악성 종양을 동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담도 폐쇄 환자 중 간흡충증 (clonorchiasis)의 유병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은 물론, 체담관 계통의 악성 종양과의 연관성도 시사한다고 여겨졌다.